

현대패션에 응용된 후프(Hoop)에 관한 연구

정 경 희 · 배 수 정

(전남대학교 의류학과 · 전남대학교 생활과학연구소)

본 연구의 목적은 후프(hoop)의 기원 및 변천과정을 고찰해보고 시대별로 후프의 유형을 분류한 후, 포스트모더니즘 이후 더욱 다양해진 후프가 현대패션에서 어떻게 응용되고 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후프의 역사적·미적 가치를 재인식하여 오늘날 복식 디자인에 창조의 영감을 줄 수 있는 하나의 모티브를 제시하는데 있다.

후프가 발생하였던 르네상스시대에는 신 중심에서 인간중심으로 사고가 변화하면서, 복식에 있어서도 인간의 신체미를 과시하려는 의도로 인체의 실루엣을 과장·확대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속옷의 중요성과 역할에 따른 심미적인 기능이 복식에 절대적으로 필요하였고, 뿐만 아니라 기교적인 면에서 속옷에 요구되는 장식성은 어느 시대보다 절실하였다. 그 결과 겉옷이 확대되고, 이에 따라 속옷도 인체를 크게 보일 수 있는 후프가 고안되었다. 후프는 스커트를 부풀리기 위해 철사나 고래뼈 등을 세공하여 만든 테를 넣은 속치마를 말한다. 16세기 중엽 스페인에서 유행한 중형의 파딩게일(farthingale)을 시초로, 영국과 프랑스에서는 드럼형의 휠 파딩게일(wheel farthingale)과 오쓰끼(hausse cul)가 유행하였다. 17세기 초기에는 후프를 착용한 16세기 복식이 유행하였으나, 1625년 이후 슬림한 스타일의 17세기 복식이 유행하자 후프의 착용은 점차 쇠퇴하였다. 18세기에는 파니에(panier)가 유행하여 옆을 부풀린 스커트의 실루엣을 형성하였고, 19세기에는 크리놀린(crinoline), 벅슬(bustle)이 유행하였다.

과거 속옷의 기능과 더불어 인체의 과시를 위해 입혀졌던 후프는 현대패션에서도 스커트의 볼륨과 실루엣의 형성을 위해 꾸준히 응용되고 있다. 특히, 1960년대 후반의 포스트모더니즘 등장 이후, 패션의 흐름이 더욱 다양해짐에 따라 전통적인 장르의 혼합 및 붕괴현상, 새로운 장르의 시도나 실험적인 시도가 패션에서도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복식의 변용과 전위에 의한 표현방법의 대표적인 예로 속옷이 겉옷으로 대체되는 것을 들 수 있는데 이는 기존의 질서로부터 탈피하려는 포스트모더니즘의 특성을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1980년대에는 기존의 스커트 속에만 입혔던 후프가 겉옷의 형태로 등장하기 시작하였지만 그 변화는 미비하였다. 하지만 1990년대에 이르러서는 이러한 현상이 가속화되어 속옷의 겉옷화 현상이 유행의 한 흐름으로 지목되었다. 따라서 과거 속옷으로만 입혔던 후프가 현대패션에서는 겉옷의 실루엣을 형성하기 위한 속옷으로 뿐만 아니라 하나의 완성된 겉옷으로 인식되고 있다. 따라서 많은 디자이너들에 의해 은닉의 미에서 보여지는 속옷의 섹시함으로 다양한 형태상의 변형을 선보이고 있으며, 2000년대에도 이러한 흐름은 후프를 더욱 다양한 형태로 변화시켜 디자이너들의 영감을 자극하고 있다.

이와 같은 연구의 결과로 다양한 소재와 획기적인 디자인을 선보이고 있는 현대패션에 후프의 응용은 디자인 영감의 원천으로 디자이너들에게 작용하고 있음을 확인함과 더불어 앞으로 새로운 디자인의 개발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